

Grace in Action

Stories of God at work in and through the GIS community

지진때문에 변한 네팔 사람들의 마음

[보안상 이유로, 하단에 언급한 선교사님들의 성명을 “테일러스(Taylor’s)” 라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태국 치앙마이에 거주하며 동남아시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레이스 학교에 재학중입니다.]

2015년 4월 25일 오전에 프렘 마야(Prem Maya)자매와 성도들이 네팔 교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땅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불길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교회 외부 앞부분이 무너져 내려 사람들이 목사님을 서둘러서 구멍에서 끌어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출입구가 너무 좁아서 프렘자매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부서진 벽사이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프렘자매는 구조되기 전까지 파편 밑에서 3시간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프렘자매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프렘자매의 어머니를 포함하여 16명의 성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진으로 22,000명이 부상을 입고 거의 9,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태국 근처에 있던 테일러스 선교사님이 이 처참한 소식을 접했을 때, 거기 거주하는 선교사님들과 마찬가지로 현지 사람들을 위해 즉각 네팔로 날아갔습니다. 그들은 방수포와 음식, 구제기금을 마련해 가져갔고 지진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와 충격을 치유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테일러스 선교사님이 제공한 중요한 디브리핑과 마음의 상처와 충격 치유 프로그램(Trauma Care)을 통해 외국인 가족들이 회복되고 계속 네팔에 남아서 그 곳 영혼들을 위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네팔 사람들과 선교사님들은 지진 이 후 몇 주 동안이나 집에서 잠을 자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후속 충격여파를 해소하도록 도와 준 것입니다.

테일러스 선교사님과 팀원들이 신속하게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와 정신적인 충격에 대처했기 때문에, 네팔 지역교회들이 마을공동체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돕고 영적인 지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진을 당하기전, 네팔 마을 주민들은 교회를 지나갈때 자주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곤 했습니다. 지진을 겪으면서 교회는 전체 마을 공동체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계속 성도들은 이전에 원수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Grace International School exists to enable international Christian workers to remain in their field of service by providing for the educational needs of their children.



www.gisthailand.org